

## 보도자료

보도일시	[지면보도] 2018년 8월 3일(금) 조간부터 가능 [인터넷 기사] 2018년 8월 2일(목) 14:00이후 가능
담당자	성재민 한국노동연구원 동향분석실장 (044-287-6307, seongjm@kli.re.kr) 안준철 한국노동연구원 홍보전략팀 (044-287-6022, jcahn@kli.re.kr)
배포일시	2018년 8월 1일(목) 18:00

## 2018년 상반기 노동시장 평가와 하반기 고용전망

- 평년수준 고용흐름 이어가나 일부부분 어려움으로 취업자 175천 명 증가 -

- 한국노동연구원은 「2018년 상반기 노동시장 평가와 하반기 고용전망」을 발표
- (2018년 상반기 총평) 15~64세 생산가능인구의 빠른 감소, 지난해 동 기간 교육서비스업과 도소매업 등 일부 서비스업 중심으로 취업자 증가폭이 컸던 기저효과, 올해 들어 생산이 부진한 제조업과 숙박음식점업 및 아파트 분양붐이 지나간 여파로 건설업(과 연관 업종) 고용둔화 등 일부 부문의 어려움이 더해지면서 취업자는 이전보다 둔화된 2018년 상반기 전년대비 142천 명 증가, 고용률은 60.4%로 전년동기와 동일, 실업률은 4.1%로 전년동기대비 0.1%p 증가하였음.
  - 15-64세 인구 6월 현재 전년동월대비 8만 명 감소. 장래인구추계 인구 적용하고 평년 수준 고용률 증가 가정 시 2018년 15세 이상 취업자 약 20만 명 내외 증가 가능한 수준이며, 여기에 지난해 상반기 15-64세 고용률이 장기 연평균 증가폭의 2배에 이르는 0.6%p 상승한 기저변동 영향 받은 점을 같이 고려하면, 올해 상반기에는 대체로 통상적인 수준의 취업자 증가 시현한 것으로 보임.
  - 단, 5, 6월은 기저변동을 감안해도 낮은 취업자수 증가 나타났는데, 이는 모두 제조업과 건설업에서 고용위축이 빠르게 진행된 영향임.

- 최저임금은 한계상황에 처한 일부 부문에서 부분적으로 고용에 대해 부정적이었을 가능성은 있으나, 올해 상반기 고용둔화의 주요 요인은 아닌 것으로 판단됨.

\*\* 최저임금 인상률은 16.4%이지만, 일자리 안정자금, 사회보험료 지원 등 직간접적인 인건비 지원으로 인해 실제 인상률은 7%대 정도

□ 종사상 지위별로 보면 상용직은 견조한 증가가 이어지고 있으며(6월 364천 명 증가), 고용원 있는 자영업자도 증가(6만 명 증가)하고 있으나, 임시(116천 명 감소) 및 일용직(85천 명 감소), 고용원 없는 자영업자(73천 명) 감소 이어졌음.

- 임시직은 제조업에서 생산둔화를 반영해 가장 많은 74천 명 감소. 도소매업에서도 21천 명 감소했는데, 이 업종에서의 임시직 감소는 이미 몇 년째 지속되고 있는 현상이고, 숙박음식점업에서는 1만 명 감소했는데, 이 역시 지난해 초부터 이어진 현상임.
- 일용직은 숙박·음식점업, 도소매업, 건설업에서 각각 53천 명, 28천 명, 12천 명 감소. 도소매업의 일용직 감소는 이미 2015년부터 지속된 현상이며, 숙박음식점업의 일용직은 증가와 감소를 해마다 번갈아가며 이어가고 있었음.
- 이와 같이 지난 몇 년간 숙박음식점업과 도소매업 임시일용직의 감소 추이를 염두에 놓고 보면, 올 상반기 임시일용직 감소의 주된 원인은 올해 특이요인일 뿐인 16.4% 인상된 최저임금에 있는 것이 아니라, 금융위기 이후 업체 급증으로 이미 포화상태에 놓여 생성과 소멸을 반복하고 날로 영업이익이 축소되고 비용압박에 시달리는 이 두 산업의 처한 상태가 원인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함.
- 고용원 없는 자영업자는 도소매업에서 60천 명 감소하였음. 그런데, 금융위기 이래 고용원 없는 자영업자는 노동시장 상황이 좋지 않을 때 증가하고 개선되면 줄어드는 경향을 보임. 이는 시장 상황이 좋아 임금근로 일자리가 풍부할 때 전직 목적 이직이 활발해지거나, 고용원 있는 자영업자로의 상향이동이 활성화되기 때문이며, 반대로 시장 상황이 안 좋아질

때는 전직이 어려워 고용원 없는 자영업 상태에 머무르거나 고용원 있는 자영업자로부터의 하향이동이 늘어나기 때문임. 따라서 금융위기 이래 추이가 유지되고 있다면, 최근 고용원 없는 자영업자 감소는 이직목적 폐업이나 고용원 있는 자영업자로의 상향이동이 활발하다는 신호일 가능성 있음.

- 고용원 있는 자영업자는 주로 60세 이상(약 4만 명)과, 30대(15천 명)에서 증가하고 있으며, 숙박 음식점업과 도소매업, 보건 사회복지서비스업에서 증가 중.

□ 연령대별로 보면 45~64세 연령대에서 주로 고용둔화 나타남(전년동기 대비 취업자 수 438천 명 ↑ → 159천 명 ↑)

- 건설업, 부동산업, 도소매업, 그리고 최근으로 올수록 제조업 고용둔화 영향을 받고 있기 때문임.
- 20대 후반 청년은 대졸자 중심으로 고용률이 증가하고 있으며, 최근으로 올수록 전문대졸과 고졸 학력자 고용도 개선되는 추세 나타남.
- 만혼화, 늦은 출산 영향을 고용률이 하락하거나 담보상태에 있던 35~44세 기혼 여성 고용률 개선 흐름 이어짐.
- 65세 이상 취업자는 취업자, 고용률, 실업률 모두 증가하면서 건강 개선, 노후소득 부족 등으로 경제활동이 증가하는 흐름 이어가고 있음.

□ 산업별로는 제조업 고용이 감소로 전환된 가운데, 서비스업과 건설업 취업자 증가폭이 둔화

- 제조업 생산이 지난해 말부터 부진한 상태를 이어가면서 취업자도 4월부터 감소 전환하여 감소폭이 커지고 있는 상태임.
- 서비스업은 지난해 상반기 큰 고용증가를 보였던 교육서비스업, 도소매업 중심으로 감소하고 있으며, 숙박음식점업은 최근 들어 감소폭이 줄어들고 있음. 공공행정과 보건복지업은 견조한 증가세를 유지하고 있으며, 금융보험, 소프트웨어 관련 업종이 있는 정보통신업, 그리고 최근 들어 전문서비스, 인테리어 디자인 등이 있는 전문과학기술서비스업 고용 증가 나타나고 있음.

- 건설업은 건설경기 둔화와 함께 건설업 고용이 일용직을 중심으로 빠르게 둔화되고 있으며, 연관업종인 부동산업도 고용 감소

□ (2018년 하반기 고용전망) 2018년 하반기 취업자는 서비스업 중심으로 상반기에 비교해 고용개선세가 나타나면서 약 208천 명 증가할 것으로 보이며, 연간 175천 명 증가할 것이라 전망됨.

- 실업률은 3.8%, 경제활동참가율과 고용률은 2017년 대비 각각 0.1%p씩 증가한 63.3%와 60.9%로 예상. 제조업, 건설업 부진이 이어지면서 중고령층 중심으로 실업자 증가 예상.
- 15~64세 인구 감소 등 인구둔화가 구조적인 취업자수 증가폭 제약 요인으로 작용하는 가운데, 현재도 증가폭이 큰 보건 사회복지 서비스업, 공공행정 부문은 고용 증가세를 이어갈 것이며, 상반기 기저가 완화될 것으로 보이는 교육서비스업 외에도, 민간소비가 전망대로 개선세를 이어간다면 정부의 재정지출확대와 맞물려 도소매업이나 음식점업에서 상반기 보다 고용감소폭이 완화될 것으로 예상됨.
- 여기에 더해 생산이 개선된 흐름을 보이고 있는 전문과학서비스 일부 업종, 정보통신업 등이 하반기에도 추이를 이어간다면 서비스업 고용의 개선세가 좀 더 뚜렷해질 것으로 기대되나, 금리 인상 가능성 등 출점이 곧 고용 증가인 서비스업 특성 상 비용 압박요인도 있어 불확실성 존재.
- 하반기 인구 감소 속도도 불확실 요인.

〈표 1〉 한국노동연구원 2018년 하반기 및 연간 고용지표 전망

(단위 : %, 천 명, 전년동기대비)

	2017			2018p		
	상반기	하반기	연간	상반기	하반기p	연간p
경제성장률	2.8	3.4	3.1	2.9*	2.8	2.9
15세 이상 인구	43,859	44,003	43,931	44,115	44,226	44,170
경제활동인구	27,628	27,868	27,748	27,794	28,106	27,950
경제활동참가율	63.0	63.3	63.2	63.0	63.6	63.3
취업자	26,509	26,940	26,725	26,652	27,148	26,900
(증감수)	360	272	316	142	208	175
실업자	1,118	928	1,023	1,143	958	1,051
실업률	4.0	3.3	3.7	4.1	3.4	3.8
고용률	60.4	61.2	60.8	60.4	61.4	60.9
비경제활동인구	16,231	16,134	16,183	16,320	16,120	16,220

주 : \*는 속보치, p는 전망치임. 경제성장률은 한국은행, 고용지표는 한국노동연구원 전망치임.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원자료, 각 연도; 한국은행, 「국민계정」, 각호; 한국은행, 「2018년 하반기 경제전망」 보도자료.

- 15세 이상 인구 증가폭의 가파른 둔화와 15~64세 인구 감소를 고려하면, 하반기와 연간 취업자 수 증가 전망치는 예년에 비해서는 낮은 수준이지만 평년수준 흐름 의미함.
  - 기저변동 없다는 전제하에, 통계청 장래인구추계에 평년수준 고용률 증가 적용하면 2018년 20만 명 내외, 2020년은 12만 명 내외, 2024년은 76천명 내외 취업자 증가 나타날 것으로 예상되어, 인구가 40만 명 이상 증가하던 2010년대 초중반 취업자 증가 30만 명 정도를 좋은 상황으로 보았던 기준선이 빠르게 하향 조정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임.
  - 올해를 포함 향후 몇 년간 전체 인구 증가 규모가 빠르게 작아지고 있기 때문에 평상시에 나타날 수 있는 고용 증가 폭도 빠르게 줄어들 것이라는 전제 하에 취업지표를 보아야 함.
  - 올해의 경우 상반기 기저변동이 작용했고, 최근 2달 간 빠르게 커지고 있는 제조업 건설업 고용둔화로 5, 6월 취업자 증가폭이 평년수준 경로를 하회한 것으로 나타나 20만 명보다 다소 낮은 175천 명 전망함.
- 인구제약으로 취업자수 증가폭이 빠르게 축소되는 것은 향후 이미 정해진 방향이므로 노동시장 상황을 판단할 때 앞서 언급한 것처럼 인구둔화 수준에 맞춰 취업자수 기준을 하향해 해석할 필요가 있고, 인구 축소의 영향을 덜 받는 고용률 지표를 함께 보면서 고용지표 해석에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음.
  - 고용률 지표도 15세 이상 고용률은 65세 이상 비중이 커지는 흐름상 상승하기 어려워 15~64세 고용률 지표 중심으로 해석 필요. 끝.